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에 따른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 : 국가대항전 경기의 기사와 댓글을 중심으로

이종길¹, 강석범², 양재식^{3*}

¹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²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박사과정, ³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강사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Expression of Aggression by Sport Situation Factors : Focusing on the Articles and Replies on International Games

Jong-Kil Lee¹, Seok-Beom Kang², Jae-Sik Yang^{3*}

¹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Sport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³Lecturer, Department of Leisure Sports, Seo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국가대항전을 중심으로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서비스 상의 2018 아시안게임 한국 팀 경기에 대한 남·여 경기 각 댓글 수 상위 5개의 기사와 각 기사별 100개의 댓글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비판적 논조로 한국 대표팀의 패배를 다룬 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빈도의 공격적 감정이 분석되었으며 스포츠경기 상황을 고려한 대중의 주체적 공감은 공격적 감정의 표출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은 욕설 및 폭언, 능력비하, 인신공격의 세 가지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그 대상은 주로 경기의 결과나 배경 상황에 핵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본 연구는 스포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상황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스포츠 상황요인, 스포츠 공격성, 집단적 표출, 유형, 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expression of aggression by sport situation factors in international sport games. For that, each 5 articles on male and female Korean team matches in 2018 Asian games with most replies and their each 100 most recommended repl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the conclusions, first, there were more frequent aggression in critical articles on Korean's losing, and the public sympathy on sport situation effected on collective expression of aggression. Second, the types of collective expression showed almost same frequency as hurling abuses, ability disparagement, and personal attack, and the targets were the main person of the background situation. This study could be valued with the new research perspectives with sport situation factors on the relations among sport and aggression.

Key Words : Sport situation factor, Sport aggression, Collective expression, Type, Characteristic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ae-Sik Yang(4774495@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0,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November 14,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공격성은 타인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의도적 반응을 말한다[1,2]. 이에 대해 Baron[3]은 태도, 감정, 동인이 아닌 의도적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Loeber & Stouthamer-loeber는 사회부적응적 행동과 폭력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특성이라고도 하였으며[4], 같은 종의 구성원을 향한 싸움본능이자 공격행위를 유발하는 원인[5]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공격성이란 특정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목표지향적인 것으로서 외부로 표출된 행위 혹은 이를 유발하는 본능적·정서적 반응을 말한다[2-5].

공격성과 유사한 개념인 폭력성은 공격성에 비해 상해의 정도가 극심한 것[6]을 의미한다. 공격성이 자기방어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폭력은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다[5,7]. 폭력성과 폭력성의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공격성은 그 반사회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폭넓게 연구되고 있다[4].

현대사회에서의 공격성은 스포츠를 통해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스포츠가 개개인의 본능적 충동의 억제를 전제로 한 문명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흥분과 공격적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이 되기 때문이다[8].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판크라티온과 같은 전투(combat) 스포츠가 채택되었던 점은 스포츠가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요 매개가 되어왔음을 의미한다[5]. 더불어 스포츠는 공격적 행위가 사회 주요 영역 내에서 허용되고 박수를 받는 유일한 대중적 인간 활동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공격본능을 건전하게 발휘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가 제시된다는 점은 스포츠와 공격성의 밀접한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5,9].

스포츠경기에서 운동선수 혹은 운동 참가자의 공격성이 발휘되는 기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적대적 공격성으로 공격자의 분노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수단적 공격성으로 상해나 고통을 주기보다는 외적인 보상이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2,10]. 적대적 공격성이건 수단적 공격성이건 스포츠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 내에서 스포츠 선수들의 공격성은 사회의 다른 영역에 비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출된다. 또한 그에 대한 처벌 역시

해당 경기에서 경고를 받거나 배제되는 수준으로 미미하다[9].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이 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관람하고 공유하는 대중에게 유사한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11]. 게다가 스포츠 경기를 계기로 대중에 전이되는 공격성 등의 원초적 감정은 집단적인 속성을 띠는 경우가 빈번하다[12].

특히, 지역적 혹은 국가적 연고 위에 선수(팀)와 관객의 근원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대항전이나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상대에 대한 공격성 등의 원초적 감정이 가지는 집단적 속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8,12]. 공통된 연고를 지닌 팀(선수)에게 관객(대중)들이 동질감에 기원한 애착을 투사함으로써 집단적인 심리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13].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 속성의 공격성은 대중의 집단적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8]. 더욱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이 대중의 공격적 감정을 자극하여 홀리건으로 대표되는 대중의 집단적 공격 행위로 표출되는 현상은 스포츠의 공격성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원인이 된다[14].

공격성을 전제로 하는 레슬링 등을 시정한 관람객의 공격성이 관람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2], 돌발적 폭력 사태가 일어난 농구경기가 이종격투기보다 관람객에게 보다 높은 공격성을 형성한 경우[15], 스포츠 참가가 해당 집단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2] 등을 고려하면 스포츠경기 자체의 공격성이 전적으로 대중의 공격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Lee, Lee & Yang[16]에 보고된 바를 고려할 경우, 스포츠 선수의 공격성이나 스포츠 종목의 공격성에 더하여 스포츠경기 현장의 내용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등 여타의 상황적 요인이 스포츠의 공격성과 함께 대중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스포츠 이슈가 그에 따른 대중의 특정 집단감정을 형성하며 이것이 그 대중의 집단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감정동학의 기제[17]를 바탕으로 볼 때, 스포츠 이슈로 대표되는 스포츠 현장의 경기 내용이나 그 배경 등의 상황적 요인이 대중의 공격적 감정의 생성과 그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때 생성되는 공격적 감정의 유형에 따라 공격성의 집단적 표출 양상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포츠에 따른 대중의 감정 반응이 지니는 집단적 속성과 스포츠의 경기 현장과 배경의 상황이 대중의 공격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적 표출 행위의 관계를 고려하면 스포츠의 공격성과 대중에 대한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경기의 상황요인에 따라 대중에게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인 표출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스포츠의 공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스포츠에서 공격성이 발현되는 경로와 그 의미 [5,9], 스포츠 경기 및 활동의 공격성이 전문선수와 일반 참가자 및 관람객의 공격성과 인간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2,15]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에 의해 대중에게 나타나는 공격성을 공격적 감정으로 간주하고 대중에의 파급효과가 큰 국가대항전을 중심으로 경기 내용이나 그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스포츠경기 상황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의 공격성이 대중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규명할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항전을 중심으로 경기 내용이나 배경 등의 스포츠경기 상황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포털 서비스인 Daum과 Naver에 게재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기간의 한국 팀 경기 관련 기사와 그 댓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포털미디어로 대변되는 국내의 다음, 네이버 등은 스포츠 현장의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기능에 더하여 댓글을 통해 익명성에 기초한 직설적인 감정의 배출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16]. 따라서 한국 팀의 경기에 대한 포털미디어 상의 신문기사와 그에 대한 대중의 댓글은 스포츠 상황에 따른 대중의 공격적인 감정과 그 표출 유형을 직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한국 팀 경기에 대한 포털미디어 상의 기사 중,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댓글이 많은 순서로 남,

여 경기 각각 상위 5개의 기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디어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18]을 고려하여 각 기사의 내용과 댓글들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포털미디어 기사와 그 댓글 수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subject articles

Gender	No.	Title of article	No. of reply
Male	1	KOR vs UZB ; from start till end by Hwang, team kim win by 4-3 after fierce overtime	17,203
	2	'Bandung Shock', KOR is defeated by MYS on a score of 1-2,	15,145
	3	Goal! Goal! in overtime by Seungwoo & Heechan, KOR defeats JPN, KOR is defeated by MYS on a score of 1-2,	10,044
	4	'1 run from semi-pro pitcher', shocking lose of KOR by TWN., red light for gold medal	6,870
	5	3rd straight wining the gold, KOR defeat JPN by good pitching of Yang & homerun og Park	6,423
Fe male	1	Couldn't turn the game, KOR is defeated by THA, fail to reach the final	3,830
	2	'Remorse own goal', KOR lose to JPN by 1-2, fail to reach the final	2,709
	3	Swimming player Kim is revenge attacked by chinese player	2,392
	4	'We are the one', a single South-North team of female basketball win the historical silver medal	1,973
	5	shedding tears of Kim & Choi, 'trained and waited together for the game'	1,263
Total		10 articles	67,852

2.2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총 10건의 포털미디어 기사로부터 분석에 사용할 댓글을 수집하기 위해 Python을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전체 댓글로부터 조회 수(추천 혹은 공감)를 기준으로 각 기사별 상위 100개 씩 총 1,000개의 댓글을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수집된 댓글들은 작성자인 대중의 공격적 감정이 언어를 매개로 표출된 형태임을 감안하여 연구자 및 2인의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 댓글을 ①욕설 및 폭언, ②능력비하, ③인신공격의 세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함[19,20]으로써 각 댓글의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유형의 공격성의 강도에 대한 명확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보다 직접적인 표현인 욕설 및 폭언이 능력비하나 인신공격보다는 강렬한 공격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다[21].

각 댓글의 공격적 감정 분류 기준과 그 예시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aggressive emotions

Type	Example	
	Content	Target
1 Hurling abuses	The class of Chink!!	CHN swimming player
2 Ability disparagement	What a great hero of sandlot baseball you are	KOR baseball player Na
3 Personal attack	I was so shameful thanks to you, Heechan	KOR soccer player Hwang

이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조사대상 기사의 주제는 무엇인지, 기술대상에 대한 논조는 우호적인지 비판적 인지에 따라 기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각 기사별 댓글에 중점적으로 언급된 스포츠 경기의 여러 배경 상황과 연계하여 각 기사에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표출 특성을 각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별 빈도와 공격적 감정의 표출된 대상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대항전에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기사 유형별 공격적 감정 표출 빈도

각 기사의 주제와 논조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Frequency of aggressive emotion by article types

Article	Theme	Tone	Freq. (/100)
M-4	Baseball team lose a match by an weaker team	Critical	88
F-3	Chinese swimming player attacked Korean player	Critical	87
M-2	Soccer team lose a match by an weaker team	Critical	76
F-1	Volleyball team lose a match and fail to go final	Critical	68
F-2	Soccer team lose a match by JPN with own goal	Critical	39
M-1	Soccer team get win after a tight march	Amicable	51
F-4	Basketball team get a historical silver, in spite of lose by CHN	Amicable	43
M-5	Baseball team win a gold against JPN	Amicable	42
M-3	Soccer team win a gold against JPN	Amicable	9
F-5	Marathon player's effort and sorrow for failure in marathon	Amicable	3

* Article code via Table 1(ex : M-1 = Male + 1)

비판적 논조를 지닌 총 5건의 기사에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은 각 기사별 100건의 댓글 중, 남자 야구대표팀의

대만 전 패배와 관련된 M-4에서 88회, 중국 여자 수영 선수가 한국 수영선수를 공격한 F-3에서 87회 등의 순서였다. 비판적 논조의 기사 중, 공격적 감정이 가장 적게 표출된 기사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자책골로 패한 사실을 전달한 F-2로 총 39회의 공격적 감정이 표출되었다.

특히, 중국 여자수영선수의 한국 선수에 대한 폭행에 대한 기사(F-3)에서 87회의 공격적 감정이 확인된 점은 선수들의 돌발적 공격행위가 관람자의 공격성을 강화한다는 [1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우호적 논조를 지닌 총 5건의 기사에서는 댓글 각 100건당, 남자 축구대표팀이 접전 끝에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한 M-1에서 51회, 여자 농구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한 내용을 보도한 F-4에서 43회 등의 순서로 공격적 감정이 분석되었다. 우호적 논조의 기사 중, 공격적 감정이 가장 적게 나타난 기사는 입상에 실패한 여자 마라톤 대표선수들의 뒷이야기를 전한 F-5로 총 3회에 불과한 공격적 감정이 표출되었다.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에서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비판적 기사 내에서도 M-4 = 88, F-2 = 39로 공격적 감정의 빈도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패배한 내용을 다룬 F-2의 경우는 39회로 우호적 논조의 기사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빈도의 공격적 감정이 표출되었다.

승리를 다룬 우호적 논조의 기사에서도 남자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접전 끝에 승리한 소식은 전한 M-1의 경우는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가 51회로 반 이상의 댓글에서 공격적 집단감정이 확인되었으나, 반면에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축구대표팀의 기사(M-3)에서는 공격적 감정의 빈도가 9회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기사 유형별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 분석 결과, 대체로 한국 팀에 대한 비판적 논조와 한국대표팀의 패배를 다룬 기사에서 우호적 논조와 승리를 다룬 기사보다 많은 공격적 감정이 분석되었다. 이는 대중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과 동일시하며[13], 이를 통해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대-좌절의 모형에 따라 공격성을 형성하기 때문일[10] 것이다.

나아가, 일본에 패배한 여자 축구대표팀에 대한 기사인 F-2에 나타난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야구대표팀의 M-5에서보다 오히려 낮은 점과 상대적으로 약팀인 대만에 패배한 남자 야구대표팀에 대한 M-4 기사의 공격적

감정이 가장 표출 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격적 감정의 형성과 표출은 단순히 경기결과와 미디어 등을 통한 그 전달[18]보다는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을 고려한 대중의 주체적 공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16]을 미루어 확인할 수 있었다.

3.2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

비판적 논조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기사의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과 그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types of aggressive emotion by background of sport (critical toned articles)

Article	Background Situation	Frequency(/ total)		
		Hurling abuses	Ability disparagement	Personal attack
M-4 Base ball	KOR was defeated by TWN TWN was so weaker than KOR Taiwanese team members were semi-pro players KOR got only 1 run from the semi-pro pitcher Target - Korean team(68), coach(7), Oh J.H.(6), Kim H.S.(3), Son A.S.(2), Oh J.H. & Park H.M.(2)	33 (/ 88)	29 (/ 88)	26 (/ 88)
F-3 Swimming	Korean swimming player kicked by Chinese There was no apology from CHN or the player Korean associations showed many lacks in supporting own players in international games Target - Chinese player(37), CHN(36), Korean association(14)	64 (/ 87)	8 (/ 87)	15 (/ 87)
M-2 Soccer	KOR was defeated by MYS MYS was so weaker than KOR Hwang H.C. made many mistakes KOR did well at just before match Target - Hwang H.C.(25), Korean team(24), coach(13), cheering sound(7), Hwang H.C. & Kim J.M.(2), Hwang H. C. & Song B.K.(1), Song B.K.(1), Park J.A.(1), Kim Y.K. & Lim M.O.(1), blaming fan(1)	26 (/ 76)	23 (/ 76)	27 (/ 76)
F-1 Volley ball	KOR was defeated by THA KOR was traditionally strong than THA Coach's player selection in game was so blamed by fans Target - coach(32), Korean team(16), Lim M.O.(8), Kim Y.K.(6), Hwang M.K.(3), THA(1), Park J.A.(1), Kim Y.K. & Lim M.O.(1)	25 (/ 68)	33 (/ 68)	10 (/ 68)
F-2 Soccer	KOR was defeated by JPN JPN was worldwide strong team in female soccer JPN's winning was made by KOR's own goal Target - Lim S.J.(18), Korean team(14), JPN(3), blaming fan(2), Lee, K.M.(1), Lee K.M. & Son H.Y.(1)	15 (/ 39)	14 (/ 39)	10 (/ 39)

* Article code via Table 1(ex : M-1 = Male + 1)

* Order via Table 3 by total aggressive emotion frequency

88회로 가장 많은 수의 공격적 감정이 확인된 대만 팀에 패배한 남자 야구대표팀의 기사인 M-4에서는 욕설 및 폭언이 33회, 능력비하가 29회, 인신공격이 26회로 분석되었다.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은 한국 야구대표팀이 68회로 월등히 많았으며, 감독이 7회, 오모 선수가 6회 등의 순서로 공격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기사 내용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살펴볼 때, 대만 팀이 주로 사회인 야구선수로 구성되어 프로로 구성된 한국 팀보다 상대적으로 확연히 열세인 실력이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인 야구 출신 투수에게 겨우 1득점에 그친 한국 팀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실망이 공격적 감정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 역시 욕설과 폭언, 능력비하, 인신공격의 순서대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여자 수영선수의 한국 선수에 대한 폭행을 다룬 기사인 F-3에서는 욕설 및 폭언이 64회로 인신공격(15회), 능력비하(8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로 분석되었다.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 역시, 중국 선수와 중국이라는 소속 국가가 각각 37회와 36회로 주를 이루었으며, 한국 협회의 무능을 질타한 경우도 14회 등장하였다. F-3에서 다른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욕설과 폭언이라는 가장 격렬한 공격적 감정 표출 유형이 분석된 것은 경기 내적인 규칙 속에서 일어난 스포츠 상황이 아니라 이를 벗어난 경기 외적인 돌발적인 폭행 사건 때문[15]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지닌 말레이시아 팀에게 패한 남자 축구대표팀에 대한 기사인 M-2에서는 인신공격 27회, 욕설 및 폭언 26회, 능력비하 23회의 순으로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이 분석되었으며, 그 대상으로는 공격수로서 많은 실수를 빚어 다른 공격수와 비교가 되던 황모선수(25회)와, 한국 대표팀(24회)이 주를 이루었다.

태국에 패배한 여자 배구대표팀에 대한 기사인 F-1에서는 능력비하 33회, 욕설 및 폭언 25회, 인신공격 10회의 순서로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이 분석되었다. 그 대상은 감독이 32회, 한국 대표팀이 15회, 임모 선수가 8회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경 상황에서 감독의 선수기용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등장하였던 점은 감독이 32회로 가장 많은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이 된 점과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에서 능력비하가 33회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가 될 것이다.

앞선 기사 유형별 공격적 감정 표출 빈도 분석에서도 오히려 3건의 우호적 논조의 기사보다 공격적 감정이 적게 나타났던 F-2에서는 욕설 및 폭언 15회, 능력비하 14회, 인신공격 10회 등의 유형이 분석되었으며, 그 대상은 자책골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임모 선수(18회), 한국 대표팀(14회), 일본(3회)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세계적인 강호로 분류되는 일본에 대한 아쉬운 패배였다는 점과 임모 선수의 자책골로 한 점 차이로 패배하였다는 배경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다른 비판적 기사와 달리 상대 팀인 일본에 대한 공격적 감정도 3회가 분석된 점은 한국인의 반일 정서가 반영된 때문[16]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비판적 논조의 기사에 나타난 공격적 감정을 배경 상황과 집단적 표출 유형 및 그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선수의 경기 외적 폭력이 나타난 F-3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욕설 및 폭언, 능력비하, 인신공격의 비율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격성의 대상은 대체로 한국 대표팀이나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선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경기 상황이 아닌 경기 외적인 폭력이 일어난 F-3의 경우로, 가장 격렬한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인 욕설 및 폭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대상이 해당 사건을 일으킨 선수 본인과 소속국가로 명확하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우호적 논조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기사의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그 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우호적 논조의 기사 유형 중 51회의 가장 많은 공격적 감정이 분석되었던 M-1에서는 능력비하가 22회, 인신공격이 18회, 욕설 및 폭언이 11회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그 주된 대상은 다른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후, 상의를 벗는 세리모니로 퇴장 당한 황모 선수가 45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두 번째인 골키퍼 송모 선수가 2회에 그칠 만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 패했으나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농구대표팀에 대한 기사인 F-4에서는 인신공격이 16회, 욕설 및 폭언이 15회, 능력비하가 12회로 분석되었다.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은 판정 시비를 일으킨 심판이 24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단일팀을 구성했던 북한이 9회, 남함과 북한의 단일팀 구성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7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F-4에서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이 공격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해당 경기 자체 혹은 기사의 논조 외에도 관련 정치적 사안 역시 공격적 집단감정의 형성에

Table 5. The types of aggressive emotion by background of sport (amicable toned articles)

Article	Background Situation	Frequency(/ total)		
		Hurling abuses	Ability disparagement	Personal attack
M-1 Soccer	Win against UZB after overtime match Hwang H.C. made many mistakes & did overacted ceremony after get a penalty goal given to the other player	11 (/ 51)	22 (/ 51)	18 (/ 51)
F-4 Basketball	Lose by CHN but get a silver medal Some one-sided judgement problem occurs North & south KOR made one team	15 (/ 43)	12 (/ 43)	16 (/ 43)
M-5 Baseball	Some problems in picking up team members for their military duty The 3 rd straight gold in Asian games by win against JPN	20 (/ 42)	8 (/ 42)	14 (/ 42)
M-3 Soccer	Win and get a gold against JPN The 2 nd straight gold in of Asian games	2 (/ 9)	1 (/ 9)	6 (/ 9)
F-5 Marathon	Long and hard training but fail to get medal Marathoners' griefs & regret	1 (/ 3)	0 (/ 3)	2 (/ 3)
	Target - Hwang H.C.(46), Song B.K.(2), defenders(1), Hwang H.C. & defenders(1), blaming fan(1)			
	Target - Judge(24), North Korea(9), Making one team of north & south(7), CHN(2), coach(1)			
	Target - Korean team(20), Oh J.H.(11), blaming fan(6), JPN(2), Oh J.H. & Park H.M.(2), coach(1)			
	Target - JPN(8), Hwang H.C.(1)			
	Target - baseball player(1), Korean Association(1), baseball team(1)			

* Article code via Table 1(ex : M-1 = Male + 1)
* Order via Table 3 by total aggressive emotion frequency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달된 스포츠 현장의 경기 내적 상황요인과 더불어 그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경기 외적인 상황요인 역시 공격적 감정의 형성과 표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16,18]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남자 야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소식을 전한 M-5에서는 욕설 및 폭언이 20회, 인신공격이 14회, 능력비하가 8회로 욕설 및 폭언이 여타의 우호적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한국 대표팀이 20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병역 특례를 위한 선발이라는 문제의 중심에 있던 오모 선수가 11회, 이를 비난하는 팬이 6회, 일본이 2회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M-5와 F-3에서처럼 압도적으로 욕설 및 폭언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경기 외적인 배경 사건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대중이 거부감을 느낀 경우였다. 따라서 대중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일으키는 경기 상황에서의 폭력성보다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대중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경우에 보다 직접적이고 격렬한[21] 공격적 감정을 형성하고 표출함[15]을 알 수 있었다.

9회의 매우 적은 공격적 감정을 보였던 M-3의 경우, 인신공격이 6회, 욕설 및 폭언이 2회, 능력비하가 1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대상으로는 일본이 8회, 황모 선수가 1회로 나타나,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의 존재 [16]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라톤 선수들의 노력과 실패의 슬픔을 전한 F-5에서는 인신공격이 2회, 욕설 및 폭언이 1회 나타났으며, 마라톤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야구대표팀과 특정 야구선수가 각 1회, 한국의 스포츠 관련 협회가 1회 그 표출 대상이 되었다. 이를 통해 전혀 다른 종목에 대한 기사에서도 대중의 부도덕에 대한 인식이 공격적 감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그 대상을 분석한 결과,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은 욕설 및 폭언, 능력비하, 인신공격의 세 가지 유형이 대체로 비슷한 빈도로 출현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대중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해치는, 경기 이외의 배경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욕설 및 폭언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석되어 대중의 공격적 감정이 보다 직접적이고 격렬하게 [21]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은 주로 해당 스포츠 경기의 내용이나 배경 사건 등의 상황요인을 구성하는 중심인물 혹은 단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의 공격성이 대중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대항전을 중심으로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집단적 표출 유형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포털 서비스에 게재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한국 팀 경기에 대한 기사 중, 댓글이 많은 순서로 남, 여 경기 각각 상위 5개의 기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Python을 활용하여 수집한 각 기사별 상위 100개 씩 총 1,000개의 댓글을 수집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수집된 댓글들은 내용분석을 거쳐 ①욕설 및 폭언, ②능력비하, ③인신공격의 세 가지 유형으로 유목화 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거쳐 조사대상 기사의 기사 유형을 기사의 주제와 논조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각 기사 내용의 배경 상황과 연계하여 각 댓글에 나타나는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기사 유형별 공격적 감정의 표출 빈도 분석 결과, 대체로 경기에 대한 비판적 논조로 한국대표팀의 패배를 다룬 기사에서 우호적 논조로 승리를 다룬 기사보다 더 높은 빈도의 공격적 감정이 표출되었다. 이는 대중의 공격적 감정이 형성되는 이유가 선수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기대를 걸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내용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격적 감정이 표출된 점과 승리했지만 오히려 높은 빈도의 공격적 감정이 표출된 기사가 있는 점 등은 단순히 경기 결과보다는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을 고려한 대중의 주체적 공감이 공격적 감정의 형성과 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둘째, 배경 상황별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과 그 대상을 분석한 결과, 공격적 감정의 표출 유형은 욕설 및 폭언, 능력비하, 인신공격의 세 가지가 대체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적 감정의 표출 대상은 주로 해당 스포츠 경기의 내용과 결과 혹은 배경 사건 등 상황요인의 구성에 핵심이 되는 중심인물 혹은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경기 외적인 문제가 대중의 도덕성과 합리성을 해치는 경우는 대중의 공격적 감정이 주로 욕설 및 폭언의 유형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격렬하게 표출되어 일반적인 스포츠 상황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중의 공격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스포츠의 공격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스포츠에 내재된 공격성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가 진행되는 경기 내용과 그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상황요인 또한 대중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포츠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스포츠경기의 상황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보다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더욱 세밀한 스포츠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R. B. Alderman. (1974). *Psychological behavior in*

- sport. Philadelphia : Saunders.
DOI : 10.1249/00005768-197500720-00012
- [2] Y. R. Kim. (2005). Study for the athletes' aggression. *The Korea Journal of Sport*, 3(2), 65-74.
- [3] R. A. Baron & D. R. Richardson. (1994). *Human aggression*. New York : Plenum Press.
- [4] S. Y. Han. (2007). Moral Emotion and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Guilt, Shame, and Empath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7), 17-33.
- [5] J. H. Hwang. (2006).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ombat Sports in History, and Human's Violence. *Korean Journal of History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Dance*, 11(2), 183-194.
- [6] L. Berkowitz.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with reinforcement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2), 165-176.
- [7] J. I. Jung. (2000). *A study on construction of violence prediction model in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8]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9). Analysis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motion and Behavior to Sport Issues in SN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65-171. DOI : 10.22156/CS4SMB.2019.9.2.165
- [9] H. K. Yi & J. H. Kim. (2013). Sport and Violence.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2(1), 11-20.
- [10] M. J. Kim & I. C. Cho. (1986). A consideration on aggressive theory in sport.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Physical Education & Sports Science*, 2, 15-27.
- [11] S. Y. Kim. (1994). *Sports Philosophy and Ethics*. Seoul : Keumkwang.
- [12]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Tendency in Sport Emotion of Korean : Focusing on 2016 Brazil Olympic Gam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41-349.
- [13] M. W. Lee. (2000). Football and Audience Psychology-A Psychoanalysis of the Factious Passion. *Economy and Society*, 54, 233-254.
- [14] S. Y. Kim. (1999). A Sociological Perspective for Typology of Sports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5(1), 1-10.
- [15] E. J. Ham. (2011). The Difference of Violence Recognition of Various Types of Violence on Sports Programs :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6(3), 59-70.
- [16]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9). Analysis of Emotions of Anti-Korea and Anti-Japan in International Soccer Games of Korea vs.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2), 463-473. DOI : 10.14400/JDC.2019.17.2.463
- [17] J. K. Lee, K. J. Lee & J. S. Yang. (2018). A Time-Series Analysis for Emotional Dynamics of Sport Issue and Group Emotion : Focusing on Korean Swimming Player Tae-Hwan Park.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8), 393-400.
- [18] J. S. Kim & I. H. Kim.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s Frame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cused on '2015 Premier1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13(1), 25-41.
- [19] C. H. Lee & J. H. Lee. (2007). The aggression of people who major in martial art spor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6(1), 213-228.
- [20] W. S. Chung, M. J. Kim & H. J. Chung. (2015). Influence on Verbal Violence by the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on Abuse Scene of Sport Broadcasting: Focusing on the Intervene Variable of Home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6(4), 874-885.
- [21] P. W. Kim. (2014). The Analysis & the Measurement of the Reactions on Adolescents' Swear-Word Stimulation for the Verbal Violence Index.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26(0), 255-287.

이 종 길(Jong-Kil Lee)

[정회원]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체육학사)
- 1992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육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와 사회문제

· E-Mail : jklee@cnu.ac.kr

강 석 범(Seok-Beom Kang)

[정회원]



- 2003년 2월 : 호서대학교 기술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박사수료)
- 2004년 12월 ~ 현재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소속 프로골퍼
- 관심분야 : 스포츠산업, 골프 지도

· E-Mail : kangti@nate.com

양 재 식(Jae-Sik Ya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이학석사)
- 2014년 8월 :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이학박사)
- 2014년 2월 ~ 현재 : 서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스포츠 정책, 전통무예 전

승 · 보급

· E-Mail : 4774495@hanmail.net